

25년 3월 목회일정

9일(주일)	성찬조별기도회
16일(주일)	초빙설교(이광원강도사-본교회)
22일(주일)	강단교류(김해개혁장로교회-양주동목사)
29일(주일)	문화주일특강(기독학생의 일상) (1/4분기 특별헌금)
4일(화)	노회 고시부(장로고시-사직동교회당)
10일(월)	노회 고시부(목사고시-사직동교회당)
11일(화)	노회발전연구위원회(사직동교회당)
12일(수)	노회 선교부(온천교회당)

주간소식

환 영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합 니 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오후예배헌금** / 구제목적(곡성연화교회 부산장애인전도협회)
3. **초빙설교** / 오늘 오후예배 - 이광원 강도사(본 교회)
4. **강단교류주일** / 다음 주일은 김해개혁장로교회(경남김해노회)
와의 강단교류가 있습니다. 오전오후 예배와 설교를 김태
영 목사께서 인도하십니다.(양주동목사-김해개혁장로교회)
5. **금요기도회** / 매주 금 오후9시 예배당
찬송 - 경건회 - 기도(공동기도, 개인기도)
6. **성구암송** / 오전예배 시작할 때 있습니다(주보7면 하단)
7.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
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 **문화주일특강** : 기독학생의 일상(중고나라주최)
30일(주일) 오후 3시 / 강사 : 최성림 목사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기도회	09:30
	금요기도회	21: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교회 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03월	04월
교회소식	고충석	김영민
봉 헌	박지영	이영서
안 내	노주혜	이근영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혁정론(고신 개혁 언론)
	파서교회(고신, 강인종)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김성옥선교사(특수지역-M국)
구제	곡성연화교회(최지혁)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기동원원장)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주후 2025.03.16.(제29-11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
교회소식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언약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다.	개 회		
	* 예배에로의 부름 ↑		시145:1-2(교송)
	인도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회 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 축복의 인사 ↓		고전1:3(인도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배찬송 ↑		찬송 4장
	죄의고백		
	* 십계명봉독 ↓		출20장(전계명/봉독)
	* 죄의공적고백 ↑		다함께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감사찬송 ↑		시편118편(10-11)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행 4:32-37	
선포를위한찬송 ↑		찬송42장(1-2)	
설교 ↓		설교자	
성경적인 교회의 본			
아멘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세례식 ↑		필요시 시행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46장(2) 구제헌금 분병 분잔	
목회기도 ↑		설교자	
봉사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42장(3-5)	
폐회			
* 강복선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최성림 목 사 설교 이광원 강도사
교회소식			
개 회			
* 예배예로의부름 ↑		시36:7(교송)	
인도자 : 하나님이며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회 중 :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다			
* 축 복 의 인 사 ↓		벤후1:2(인도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경 배 찬 송 ↑		찬송가64장(3-4)	
신앙고백			
*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감 사 찬 송 ↑		시편104편(7-8)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 경 봉 독 ↓		출32:1-14	
교 리 문 답 교 독 ↓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9편(3-5)	
설 교 ↓		설교자	
예배인가? 우상숭배인가?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자비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59장	
폐 회			
* 강 복 선 언 ↓		최목사	

주일설교를 기억하며(성경적인 교회의 본)

1.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서 교회가 은혜로 총만하기를
2. 한 몸 된 교회가 서로를 돕기 위해서 공출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3. 헌신된 직분의 사역을 통해서 온 교회가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곡성연화교회(최지혁 목사·교신)

1. 말씀을 배우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확신 가운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되게
2.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3. 오후예배와 전도사랑방을 통해 새로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자람이 있도록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목사)

1. 전도협회가 주님이 허락하신 장애인사역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잘 감당하도록
2. 평소 만나는 장애인들과 복음의 귀한 교제가 이루어져 복음 안에서 그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3. 사무실이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재정과 환경되게

국가의 안위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

1. 국정이 속히 안정되어 이념노선에 따른 국론분열이 잦아들고 이로 인한 분노와 다툼이 사라지게
2. 교회들이 주님의 명하신 뜻을 드러내어 입법부가 창조질서와 백성의 안위를 돕는 정책을 세우게
4. 교회 지도자들이 세속정치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 성도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거룩성 회복하게

주간기도회		
아침기도회 월~금 06시(교회밴드)		
시편 묵상 인도 : 양주동 목사		
수요기도회 수요일 09:30(예배당)		
[나의 이름을 위한 집] 인도 : 최성림 목사		
금요기도회 금요일 21시(예배당)		
찬송 : 고충석 장로 말씀 : 최성림 목사		
지역기도회 인도 : 최성림 목사 * 동래(수, 20시)		
인도 : 양주동 목사 * 김해(월, 19시)		
주간성경읽기		
주일	겔 1-2	행16:25-40
월	겔 3-5	행 17:1-15
화	겔 6-7	행17:16-34
수	겔 8-10	행 18
목	겔 11-13	행19:1-20
금	겔 14-15	행19:21-41
토	겔 16-17	행20:1-16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도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고전 9:11,12)

고린도교회 성원들은 다른 사도들의 생활과 비교하여 섬김에 있어서 전혀 물질적인 것을 원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하지 않은 바울을 보고 그의 사도권에 대해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아니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합당한 권리가 따릅니다. 사도바울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 염려하여 이 권리를 포기하고 불편하게 지낸다고 말합니다.

특권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면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주인이 마땅히 그 포도실과를 먹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양을 기르는 목자가 양의 젖을 먹는 것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 권리를 “내가 차라리 죽을 지언정”이라며 강한 어조로 “복음을 위하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즉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것, 곧 복음전하는 일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는 스스로 이 복음을 위하여 (장막만드는 일로써) 자비량하며 거리낌 없이 복음을 드러내며 범사에 참으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잠시의 편리를 위해 복음의 장애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 한 행동이 나의 평안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하여 복음을 막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나, 연보를 드리는 것이나, 시간을 드려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나, 신앙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과연 이 시간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는 명령을 좇는 자들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까요? 진실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주님의 탄식이 여전히 귀를 울립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위하여 내게 있는 특권과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세상에 있는 지혜를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많았으면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받은 생명의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말씀을 인하여 삶이 변화되어졌으면 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간 암송(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시편 2:7-8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합니다. 세 번째 모방은 **우상숭배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4) **예배의 형식도** 모방됩니다. 출애굽기 32장 5-6절에서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절일”을 선포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했던 행동과 유사합니다. 24장에서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뛰놀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의 제사를 모방한 성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뛰놀다’는 단어는 ‘조롱하다, 비웃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네 번째 모방은 예배에 인간적인 요소와 이방적인 방식을 섞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우상숭배입니다.

2.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올바른 예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참된 예배는 형식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이 스라엘에게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는 이 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참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신 것을 예표합니다.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새 한글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드려야 합니다.”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참된 예배의 기준은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해야 한다’입니다. 즉, 참된 예배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감정만 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그런 세상의 이야기나 세상의 교훈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과 가르침에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중심을 이루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나 감정적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헌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 위에 세워지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변질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수한 예배입니다. 인본주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철저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3월16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600장
성경봉독	행 4:32-37
설 교	성경적인 교회의 본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하나님은 말씀과 구제를 통해 교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가 본받고 싶은 롤모델입니다. 비록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단지 그 시대에만 머물러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1.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목숨”으로도 바꾸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뜻”이나 “목숨”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고 자주 말씀합니다(신 6:5; 마 22:37; 막 12:30; 눅 10:27).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한 뜻, 한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한 몸이 된 것 같이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자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32절의 앞뒤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31절과 3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현장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의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악 가득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부활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중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거룩한 복음이 강설되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핵심은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선포했을 때에 무리에게 큰 은혜가 임합니다 (33절). 큰 은혜가 임하니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로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단순히 사람의 호의로 구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에 사람은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두가 부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 “구제”로 위로하는 교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몸’ 된 교회에게 나타난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구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제를 보고서는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모조리 팔고서는 ‘공동의 재산’으로서 공유했다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았던 사람들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꺼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들이 재산을 팔아 ‘가지고 왔다’고 할 때에 헬라어 동사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한 번에 이뤄진 것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모두가 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 그리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전부 다 팔았다면 ‘과거 시제’를 사용했을 겁니다.

몇몇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았던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재산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초대교회만 가지는 새롭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교회에서도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것을 명했습니다(신 14:29).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를 돕는 ‘구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만 행했던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면 언제나 행하는 당연한 사역입니다.

구제는 한 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몸의 지체 일부가 다치면 온 몸이 고생합니다. 왼발이 다치면 건강한 오른발이 돕습니다. 교회 안의 구제가 그렇습니다. 한 몸 안에 어떤 지체가 가난으로 굶주리고 있다면, 비교적 물질이 있는 성도가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돕기보다는 구제사역을 통해 도와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소유를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둡니다. 이때까지는 구제와 분배 사역을 할 ‘집사’ 직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구제와 분배까지 모두 도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들은 모인 구제금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요. 구제를 할 때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마 6:3).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구제금을 내었고, 사도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특별히 구제를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했던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던 사람이지만(신 10:9), 그는 재산을 팔고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원래 레위인은 성전을 위해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혈통적인 레위인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올바른 설교와 구제, 직분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거룩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3월 16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288장
성경봉독	출 32:1-14
설 교	예배인가? 우상숭배인가?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

모방에는 좋은 모방과 나쁜 모방이 있습니다. 인간은 좋은 모방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지만, 나쁜 모방은 왜곡과 타락을 초래합니다. 성경에서도 모방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며 올바른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도 하나님을 모방하며 왜곡된 예배를 만들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욕망이 혼합된 우상숭배인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1. 금송아지 숭배 속에 나타난 모방과 왜곡

금송아지 사건은 성막 규례가 설명되는 중간에 등장하며, 이는 백성이 성막을 모방하면서도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강조합니다.

1)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요구하는 장면**부터 그 모방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나(하나님)를 위해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향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모방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명령만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이방 신(애굽의 아피스)의 형상을 모방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2)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하나님의 방법을 모방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기구들을 위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하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 번째 모방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발적인 예물을 우상을 위한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다른 대상에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3)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두고 백성들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금송아지에게 적용